



윤석열 퇴진시키기 평등으로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평등으로> 제14호

2025년 4월 4일(금) & 5일(토) | <https://toequality.net>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체제전환운동

연대하는 시민이 승리했다! 가자, 평등으로!

윤석열 파면시킨 우리의 힘이 우리의 미래

긴 불면의 밤이 끝났다. 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한 날로부터 그가 대통령이 아님을 확인하기까지 넉 달이 흘렀다. 뒤척이던 122번의 밤을 지나 드디어 민주주의의 새벽을 만났다. 광장에 모여 함께 분노하고 서로 응원하며 민주주의의 함성을 멈추지 않았던 힘이 새벽을 불러왔다. 국회 앞에서부터 남태령-한강진-광화문을 거쳐 현재 앞까지, 또 지역 곳곳에서 서로 돌보고 연대하며 민주주의의 위엄을 지켜낸 시민의 힘으로 함께 맞은 새벽이다. 꿈꿀 시간을 빼앗긴 우리의 밤은 고단했지만 동트는 새벽의 환희는 우리의 것임을 안다.

파면은 마땅한 결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마땅한 결론이었다. 헌법에 '비상계엄' 조항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우긴다면 헌정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겠는가. '야당의 폭주'가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명분이 된다면, 대통령이 선거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 계엄이 정당화되기를 바란다면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락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이었다. 그런데 이다지도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만큼 사회가 더욱 어지러워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균열이 난 헌정질서는 헌법

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만든 틈을 벌리며 쏟아져나온 극우 세력은 민주주의를 계속하여 위협할 것이다. 최소한의 합리성,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며 탄핵 불복에 나서거나 혐오 선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하지만 절차적 시비를 일삼으며 탄핵을 지연시킨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권한대행들, 내란에 동조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정부 각료들, 체포를 방해한 경찰과 구속을 취소한 검찰 등 내란의 시간을 지속시킨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파면 결정으로 면피할 수 없다. 밤을 지새운 시민들을 위로하려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다시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우리 앞의 과제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더욱 심대하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극우'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평범한 이웃들로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야 한다. 그러려면 '윤석열들'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평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일하고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은 늘었다. 소득은 줄고 빚은 늘고 전세금은 사기당했다. 폐업으로 향하는 내리막길, 사망을 에워싸는 혐오가 숨 쉴 틈도 막아왔다. 우리는 알고 있다. 위기는 계엄 이전부터 지속되었으나,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거대 양당은 부자들에게는 감세와 지원을, 가난한 이들에게는 과로와 모욕을 내놓는 데 차이가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현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넘어선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향해야 한다. 우리의 삶과 세계에 드리운 위기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로 말하고 우리의 대안을 토론하며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에서 누구도 나중으로 밀려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과 함께 시작될 것이다. 광장에서 선언은 이미 시작되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과 함께, 투명인간처럼 숨겨지고 비시민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용기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일터와 학교와 곳곳의 일상에서 겪은 차별의 경험들로부터 존엄과 평등의 민주주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게 했다. 알지 못하는 이의 이야기로부터 세상을 알게 되고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어졌다. 세상을 바꿀 힘이 평등으로 가자고 외치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자, 평등으로!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의 힘이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우리의 미래다. 광장의 평등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흐르게 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가장 가까운 미래이자 평등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성평등과 인권 실현, 민주주의를 확장할 정치 개혁, 안전한 일터와 주거,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 노동이 존엄하고 기후정의 당연한 나라까지... 한걸음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걸어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며 길을 넓힐 것이고 평등 세상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성 불면으로 꿈꿀 시간은 부족했지만 우리의 꿈은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가자! 평등으로. ▲

윤석열(들)은 감옥으로, 노동자들은 일터로!

광장에 나선 많은 이들이 외쳐온 것처럼 이번 겨울 내란 사태는 단지 윤석열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나지 않았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지금의 정치사회 체제가 낳은 사태이자, 만연한 불평등과 양당 정치의 산물이다.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다. 심각한 고비를 넘어섰을 뿐이다.

파면 이후에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 이 시간 공장과 철탑, 지하철도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박정혜·소현숙(금속노조 한국유타칼하이테크지회), 김형수(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진수(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파면 선고가 이뤄진 4월 4일 기준, 이 노동자들은 각각 453일, 51일, 2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철탑 위에서 내려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어야 진짜 승리다. 민주주의를 긴 여정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다.

네 명의 노동자들은 왜 고공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나? 닛토덴코 자본이 17조원 수익을 먹튀하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재할 법제도적 수단이 우리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 사측이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고, 노예처럼 일만 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 외투기업 먹튀를 규제하는 법, 정리해고제의 철폐,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과 노동 탄압에 맞선 싸움의 최전선에 선 이들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다. 불안정하게 일하는 3천만 노동자들의 승리다. 그래야 광장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

민주주의 수호에서 확장으로! 퇴진넘어 사회대전환으로!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그러나 내란 사태와 극우의 발흥을 낳은 원인인 ‘신자유주의-수구·보수기득권 양당체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민주주의-평등-연대’라는 퇴진광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존엄과 평등-기후정의’가 실현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시민주권 강화로 민주주의를 더 넓게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구현해 나갈 때다. 직접민주제 도입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시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와 정부에만 맡겨진 법안 발의 기능을 시민의 손으로 가져오자. 모든 노동자와 시민에게 집회·결사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의 비례성을 반영하도록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자.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노동자의 일터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곳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알권리’에

기초해 자본과 국가에 맞선 ‘민주적 통제권’을 쟁취해, 일터와 삶터로 민주주의를 넓혀 나가자.

누구나 누리는 존엄하고 평등한 삶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허울에 불과하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사회운영의 제 1의 원리로 바꿔, 노동이 존엄한 사회로 나가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차별없는 노동권, 생활임금, 안정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타파해,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나이에 따른 차별과 혐오를 없애나가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위한 출발선이다.

이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주거·먹거리·교육·의료·돌봄·교통·에너지 등, 우리 삶에 필요한 필수재를, 공공에 의해, 보편적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도록 하자. 이를 위해 재벌대기업과 불로소득자의 배만 불리는 한국경제를 존엄을 위한 ‘민주적 공공경제’로 바꿔나가자.

기후정의로 생태적 전환의 길 내기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몰이해와 성장주의에 근거한 생태파괴를 끝내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다. ‘대량생산-대량소비-과로노동’을 끝내자. 재산세·법인세 증과세로 기후위기의 주범인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책임을 묻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지역민의 삶을 보장하며, ‘공공재생에너지-공공교통’ 등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투자가 국가의 책무가 되도록 하자.

사람, 비인간동물, 자연에 대한 자본의 착취·수탈을 모든 존재들 간의 공존과 연대로 바꾸면서, 산업·노동·일상 삶의 전영역에서 생태적 전환을 이뤄내자.

‘시민주권-존엄과 평등-기후정의’는 ‘현정질서 수호’만으로 이룰 수 없다. 광장투쟁은 민주주의 수호에서 민주주의 확장으로, 사회대전환 운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평등·돌봄·연대·생태가 사회의 보편가치가 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연대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자. ▲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 ‘퇴진너머 평등으로 충북포럼’ 열려

4월 5일 충북 청주에서 <퇴진너머평등으로 충북포럼>이 열린다.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 쓰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지역소멸과 공공성, 지역에 뿌리 내리는 진보정치, 광장을 지키는 페미니즘, 삶터와 일터를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 등 4개 주제로 지역활동가들이 발표문을 준비했다.

우리는 내란 사태 이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다.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갉아먹는다. 기후 위기 속에서 반복되는 재난은 삶터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서로 다른 신념과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득세하면서 폭력은 일상과 사이버공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제도의 정치가 아니라 오히려 삶 그 자체다. 그래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과 일터는 나아질까’라는 질문에 머뭇거린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퇴진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의 토양을 바꾸는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 ‘그건 나중에’로 미루면 우리가 삶터와 일터에서 체감하는 민주주의 위기는 더 악화할 뿐이다. 삶의 권리는 지워지고 소멸된다. 이에 저항하는 투쟁은 당연히 벌어지겠지만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낼 서사가 없다면, 투쟁은 고립되고 투쟁 이후에 무기력과 좌절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에게 말걸기를 시작한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말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존엄한 삶이 가능하기를 바라는 노동자들, 차이가 차별과 배제를 만드는 현실을 바꾸고 싶은 시민들, 위기와 재난에도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체를 지키고 싶은 이들이 함께 하길 소망한다. 4월 5일! 광장의 목소리를 새로운 민주주의로 이어낼 이야기를 충북에서 시작해보자! ▲

정권만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바꾸면 돼!

무기력과 좌절을 넘어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는 공론의 장
광장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청남로2065)

주제강연 광장의 목소리로 새로 쓰는 민주주의
미주 [체제전환운동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세션1. 광장과 진보정치 퇴진너머 진보정치, 지역에서 뿌리 내리기

세션2. 정의로운 전환 일터와 삶터를 지키는 에너지산업전환 방향

세션3. 지역소멸과 공공성 소멸되지 않을 우리의 삶과 권리

세션4. 젠더평등 지역과 광장을 지키는 페미니즘

중점토론 및 약속은 재배

우리끼리 함께하자

세상을 바꾸는 일정

퇴진너머 평등으로 충북포럼
체제전환, 지역운동 변화를 꾀하다

일시 : 4월 5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 청주교육대 교육연구원

[설문] 내가 시민총파업에 나선 이유

기한 : ~ 4월 5일(토) 자정 1차 마감

참여하기 : <https://bit.ly/strike-story>

세월호참사 11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일시 : 4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 경북궁역 4번출구

책읽기모임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일시 : 4월 17일(목)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 망원동 플랫폼C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감상회

일시 : 4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 아침마당 (강원도 원주시 무실로 21, 2층)

신청 : <https://bit.ly/월간렌로치>

[수다회] 노조가 내 맘으로 들어온 날

일시 : 4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 향린교회 5층

『고등학생 운동사』 출간 북토크

일시 : 4월 19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